



③ 화두(話頭)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에게 스승이나 조실스님이 풀이해주시는 과제, 문제를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話頭)의 어의(語義)는 '말'이나 '대화'를 뜻합니다. 즉 깨달음을 얻은 선승들의 오도(悟道) 일화(逸話)를 지칭하는 선승과 선승, 또는 선승과 참선자 사이에 오고간 선문답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는 '법담(法談)' '법거랑'이라고도 하는데, 선문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나 문구가 화두인 셈입니다.

유명한 화두인 '무(無)' '간시궤(乾屎橛, 마른 똥 막 대기)' '마삼근(麻三斤, 삼세근)' '정전백사주(庭前柏樹子, 뜰 앞의 잣나무)' 등도 모두 선문답이나 오도(悟

선문답 가운데 '핵심 문구'

있지만, '화두'는 '무' 한 글자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까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두 중에서도 무자화두처럼 아무런 뜻이 없는 화두도 있고, 의미하는 바가 있는 화두('마삼근' '간시궤' 등)도 있습니다. 설사 의미하는 바가 있는 화두라고 해도 무자화두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참구할 때엔 차이가 없습니다. 무자화두도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주 선사(조주)가 '무'라고 한 것은 '개에게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바로 "그대가 만일 이 '무'자에 대하여 분별의식 즉 업식성을 갖는다면 깨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화두는 풀(解) 수도 있고 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풀어 해석하게 되면 무의미한 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면 '사구(死句, 죽어버린 말)'라고 하고, 풀지 않으면 '활구(活

는 확신, 절대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화두 참구방법을 숙지한 뒤에 참구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화두나 공안을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것을 간화선(公安선, 화두선이라고도 함)이라고 합니다. '간화(看話)'란 '화두를 참구(看)한다'는 뜻으로, '무' '간시궤' 등 화두 참구(참구)를 통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수행법입니다. 이와 반대인 묵조선(默照禪)은 화두나 공안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앉아서 좌선만 합니다.

요즘 '화두'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극 애용하는 바람에 대중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대략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관건'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에서 쓰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화두의 역할'.

■윤창희 민족사 대표

Tip 업식과 화두

▲업식(業識): 분별의식, 차별의식, 분석적 사고 등을 업식, 업식성(業識性, 업을 짓는 속성) 또는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등 흑백논리로 따지고 분별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칭이 불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봅니다. 차별하거나 분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화두(話頭): '화(話)'는 '말' '대화'이고, '두(頭)'는 어조사입니다.

선문답의 전체 단락은 '공안'·선사의 답어는 '화두'로 구분 대중적 의미로 '해결해야 할 과제'·'관건' 등으로 사용되기도

도) 이야기 속의 핵심어입니다. 화두를 다른 말로는 '공안(公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용례를 중심으로 좀 더 세분화하면 대화의 전체 단락은 공안이 되고, 선사의 답어는 화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자화두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조주 선사(趙州, 778-897)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부처가 될 성품(佛性)이 있습니까?" "무(無, 없다)." "일체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찌 개에게는 없습니까?" "그에게 업식(業識=중생심,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 나." "이상의 대화 가운데 전체 단락을 '공안'이라고 할 수 있고, 선사의 답어, 즉 핵심어인 '무(無)' 한 글자를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안과 화두의 쓰임새를 본다면 '공안'은 대화 전체와 핵심어('무') 모두에 통용되고

구, 살아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적 관념적 해석이 아닌 은묘로 사유(체현적 사유, 수행)를 통한 해석이라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지(理智)와 체험적 사유가 결합된다면 그 힘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참구를 통하여 체득한 것이 되므로 매우 비랍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자화두의 대가인 대혜 스님(大慧, 1088-1163)은 "이 '무자'야말로 모든 사람 분별심과 잡념을 물리치는 '무기'이며, '지혜의 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두 하나로 모든 번뇌와 근심, 걱정 등 불안을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화두는 모두 17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참구해도 되고 스승으로부터 받아서 참구해도 됩니다. 가능한 자신이 존경하는 분에게 직접 받아서 참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 있는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개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회광반조로 '욕망의 사슬' 끊다

③ 마등가의 딸 프라크리티

<마등가경(摩登伽經)>과 <능엄경>에는 아난을 유혹한 마등가의 딸 프라크리티(鉢吉帝)가 등장한다. 마등가는 고대 인도에서 천한 직업인 가졌던 전다(鞭打)와 같은 계급의 남자를 가리키며, 여자는 마등기(摩登伽)라고 부른다. 특히 사술(邪術)을 이용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예가 많았다.

두 경에 따르면, 이런 이집 아난이 사뱃티성에 들어가 결식을 하고 나오다 우물가에서 마등가 출신의 프라크리티로부터 물을 얻어 마신다. 이때 이 여자가 아난의 용모와 음성 등에 반하여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어머니의 주력을 빌어 아난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었다. 어머니는 주술로써 아난을 결박하고 저녁때가 되어 아난의 곁에 잡자리를 펴놓았다. 딸은 기뻐하며 몸치장을 한 다음 아난에게 그녀의 소원을 들어 줄 것을 간절히 청했다. 아난은 자신이 출가승이 되어 황발외도(黃髮外道)의 주력(呪力)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합장한 채 부처님에 계시는 쪽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했다.

이 때 부처님은 칠월 보름 여름 해제날이자 파사익왕 아버지의 제삿날이므로 그의 청을 받아 왕궁에서 공양하시던 중이었다. 아난의 결박을 신통력으로 아난 부처님은 공양이 끝난 즉시 능엄대신주(楞嚴大神呪)를 설하여 문수보살로 하여금 이 주문을 가지고 가서 마등가의 주력을 소멸하고 아난을 구출하라고 명했다.

아난이 풀려나자 다음 날, 여자는 성안에서 아난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난이 결식을 하고 돌아가는 뒤를 따라 기원정사까지 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눈, 코, 입, 귀와 소리, 몸매, 걸음걸이 등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설했다.

"아난의 눈에는 다만 눈물이 있을 뿐이며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 귀에는 귀지, 몸뚱이에는 대·소변이 담겨 있는 한때의 가죽주머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비유를 들어 무상(無常) 법문을 설하자, 그녀는 이 몸은 추악하고 부정한 동시에, 송장이 변한 몸이 불과하다는 것이 뚜렷해졌다. 속세의 인연이 무리악은 그녀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애육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마음에서 아난에 대한 음욕과 갈애, 미움이 모두 힘을 잃었다. 부처님의 말씀 듣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보는 회광반조(廻光返照)를 통해, 그녀는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환출리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다.

이를 본 대중들은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이처럼 쉽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은 그녀의 전생 인연을 말씀하셨다. "이들은 과거 5000년 동안을 계속 부부가 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왔고 또한 나의 법 중에 깊은 숙연이 있었으므로, 이제 나를 만나 도를 깨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마치 형제 자매와 같다."

프라크리티는 비록 현생에서는 욕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곧바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를 깨달아 해탈하였다. 특별한 수행법으로 오랜 기간의 수련 없이 법문을 듣는 즉시 깨달은 언하변오(言下便悟)는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3법인(三法印)을 철저히 요달한 자에게만 나타난다.

부처님께서 프라크리티에게 제행무상을 절건하도록 한 법문은 탐욕을 없애기 위해 나와 남의 몸을 백골 등 더러운 것으로 보는 골상관(骨想觀)·백골관(白骨觀)·부정관(不淨觀)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정관은 오늘날도 태극과 미안마 등 남방 불교권에서 널리 권장되는 기초 수행법이다.

부처님은 "애육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면 아도 아무도 출가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을 정도로 윤회의 근원인 갈애(渴愛), 그 가운데 애육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알았다. 타는 듯한 애육을 극복하고 해탈을 이루었다"(법구경)는 부처님 말씀처럼, 애육의 정복은 구도의 마지막 관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s@hanmail.net

민속죽염 2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성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제.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가 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날날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통.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요술.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통>과 <바로보인 선문요술>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무료 개방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중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불토사'라고 치세요! 무보시로 기도하실 비구,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을 반곡리 356-3번지 중무소 전화: (033)343-0103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괘거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g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남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